

주간 글로벌 철강뉴스(19년 10월 4주)

한국철강협회 조사분석실 (bonghee.jang@ekosa.or.kr, 02-559-3558)

< Executive Summary >

◆ 세계철강협회, '19-'20년 철강수요전망 발표

- '19년 철강수요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양호한 중국 철강 수요가 글로벌 수요를 견인하며, 전년비 3.9% 증가한 1,775.0백만톤이 될 전망
- '20년 세계 철강수요는 올해 대비 성장세가 둔화되어 1.7% 증가한 1,805.7백만톤 전망
- 중국 및 선진국의 성장세는 저조한 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세안이 글로벌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

◆ 중국 정부, 소규모 불법설비 확산으로 산업 구조조정에 어려움

- 중국 정부는 최근 지역별 소규모 철강사의 불법설비 확산으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언급
- 또한, 중국 철강기업의 신규설비나 불법설비 가동으로 철강산업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철강산업의 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점을 우려
- 일부 지방정부는 철강을 지역 경제성장의 견인하는 역할로 활용하여 감축을 위한 중앙정부의 계획과 대조되는 움직임을 보이며, 환경규제 강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의 조강생산은 전국 평균성장률(8.4%)의 최대 4배 수준까지 증가

◆ 그 외 주요 뉴스

- 일본제철 사장, 232조 일본산 예외품목 축소 가능성에 우려
- 태풍 '하기비스' 영향으로 동일본 철강업체 피해
- JSW Steel, '26년 인도지역의 철강 생산능력 45백만톤 계획
- 중국 원안강철과 중예그룹, 말레이시아에 동남아 최대 일관제철소 계획
- 미국, 터키산 철강재에 관세 50%로 상향조정
- 중국 중신평수강, 13백만톤의 글로벌 최대규모 특수강 생산업체로 상장